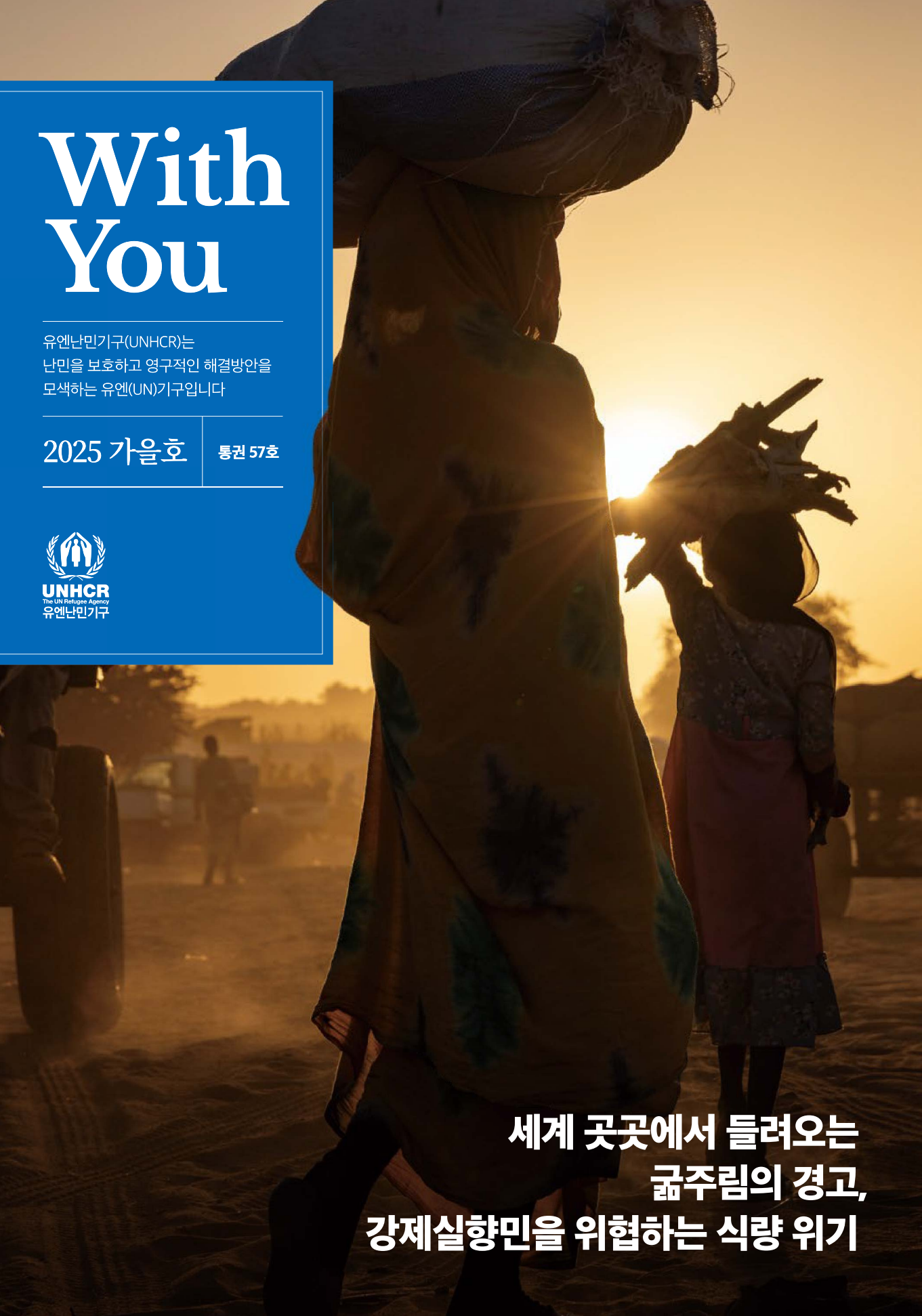


With You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유엔(UN)기구입니다

2025 가을호 | 통권 57호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굶주림의 경고, 강제실향민을 위협하는 식량 위기

WithYou

2025 가을호 | 통권 57호

03 편지함
후원자님의 지원이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04 커버스토리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굶주림의 경고,
강제실향민을 위협하는 식량 위기

10 WithYou가 만난 사람
노재현 연합뉴스 기자 인터뷰

12 유엔난민기구는 지금
태양광 시스템, 남수단에서 난민과 지역사회 간 다리를 놓다

14 WithYou, 함께하는 사람들
후원자님과 유엔난민기구의 첫 약속

16 소중한 후원이 만든 변화

20 돋보기 : 유엔난민기구를 들여다 보다

22 유엔난민기구 소식

24 고맙습니다
WithYou 소식지 독자 참여 이벤트

표지 사진

차드 국경 마을 아드레Adre에 새로 도착한 수단 난민 가족. 유엔난민기구는 아드레 현장을 지키며 생명을 구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UNHCR/Andrew McConnell

WithYou 소식지 설문 조사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더 나은 소식지 내용을 위해 후원자님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벤트 기간 내 설문 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유엔난민기구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참여 기간 2025년 11월 21일(금)까지
참여 방법 우측 QR코드 스캔 후 링크로 들어가서 이벤트 참여 완료

설문 참여하기

발행일 2025년 9월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인** 김새려
제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민간파트너십팀 **디자인** 더디앤씨
후원 방법 후원 계좌 : 국민은행 407537-01-004288(예금주 : 유엔난민기구 혹은 UNHCR)
입금 후 확인 전화(02-773-7272) 부탁드립니다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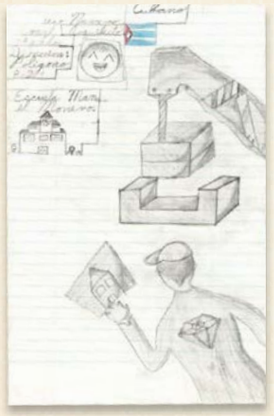
후원자님의 지원이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에르메리스(Hermerys), 7살,
베네수엘라 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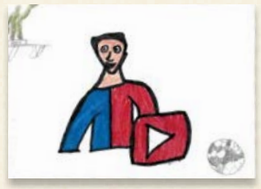
제 꿈은 과학자예요.
크리스토퍼(Christopher), 7살,
콜롬비아 출신

사람들을 지켜주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에산(Ehsan), 9살, 아프가니스탄 출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조엘리스(Johelis), 9살,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짓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디에고(Diego), 9살, 쿠바 출신



축구선수도 되고 싶고, 유튜버도 되고 싶어요. 둘 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드리안(Adrián), 8살, 베네수엘라 출신

아이들, 특히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마리에네(Maryene), 15살, 베네수엘라 출신

스케이트를 타면서 저는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스케이팅은 제게 날개가 되어줘요.
브리아나(Brianna), 11살, 베네수엘라 출신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굶주림의 경고, 강제실향민을 위협하는 식량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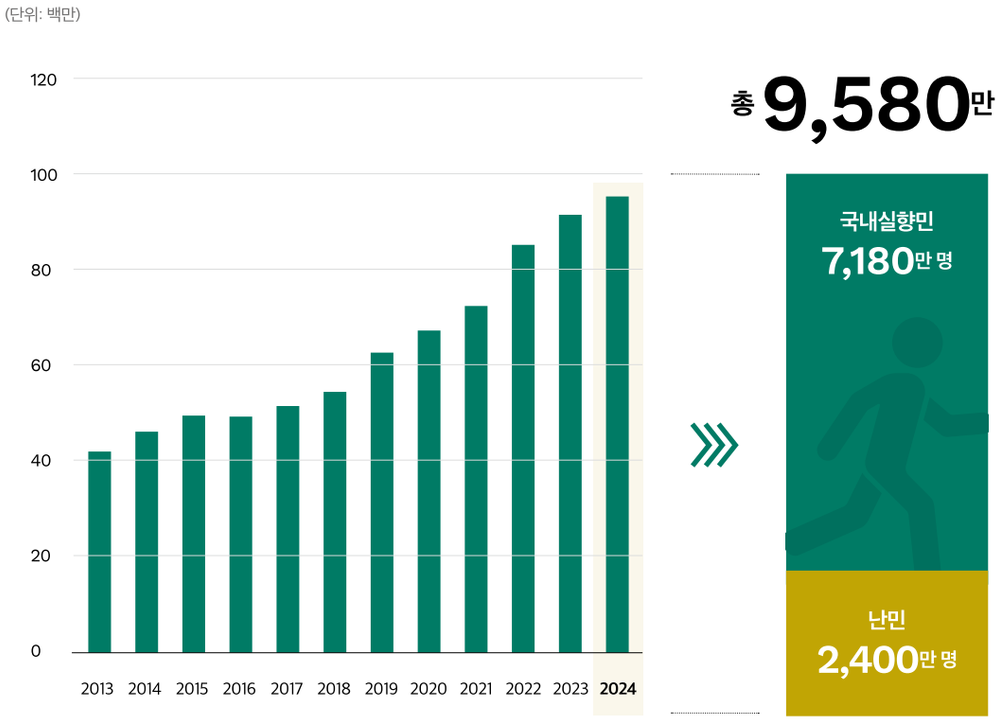
가을의 식탁은 언제나 풍성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해의 풍요를 축하하고 온 가족이 모여 햇곡식과 햇과일을 나누는 추석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시기 매년 찾아오는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모두가 끼니 걱정 없이, 굶주리지 않는 일상을 누릴 수 있을까?
2025 세계식량위기보고서(GRFC)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3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약 2억 9,530만 명이 심각한 식량 위기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70만 명 증가한 수치로,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는 인구는 6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는 이제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재난입니다.

© UNHCR/Ala Kheir

강제실향민 10명 중 8명은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가 빈번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분쟁으로 안정된 식량 공급망 확보가 어려운 수단, 시리아,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네 나라에 전체 국내실향민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되어 있으며, 아이티, 수단, 남수단에서는 약 11만 4천 명의 국내실향민 및 귀환민이 재앙(IPC Phase 5 통합 식량 안보 단계 분류 5단계) 수준의 식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24년 식량 위기를 겪는 국가와 지역에서의 강제실향 인구 규모는 전년 대비 4% 증가해 9,580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분쟁, 자연재해 등으로 살 집마저 잃은 강제실향민에게 농사를 지을 땅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난한 지역에 정착해 안정된 생계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먹을 것을 구하거나 사는 일 자체가 일상의 도전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도 영양실조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식량 위기 국가·지역에 머무는 강제실향민



자료 출처: 2025 세계식량위기보고서(GRFC)
세계식량위기보고서(GRFC)에 포함된 52개 국가·지역 기준

식량 위기의 주요 원인

식량 위기는 전쟁, 경제 위기, 기후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자료 출처: 2025 세계식량위기보고서(GRFC)

전쟁과 분쟁

2024년 한 해 동안, 20개국에서 1억 3,980만 명이 전쟁과 분쟁으로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농경지와 시장은 파괴되고, 도로와 항구가 막혀 식량 수송이 끊어집니다. 전쟁과 분쟁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배고픔이라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 UNHCR/Tiksa Negeri

경제 위기

농업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들은 밀, 쌀, 옥수수 같은 주식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해 살아갑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저소득 국가가 가장 먼저,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 식량을 수입할 외화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식료품 가격과 물가가 덩달아 오르고, 기본적인 식량조차 살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지난 2024년 경제 위기로 전 세계 15개 국가에서 5,940만 명이 식량 위기를 겪었습니다.

© UNHCR/Sona Dadi

기후 변화

지난 한 해 동안 18개국에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두 배에 육박하는 9,610만 명이 기후 변화로 인해 식량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폭염, 가뭄, 홍수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농업 생산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몇몇 국가의 농업 생산량 감소는 해당 국가만의 식량 위기를 넘어, 전 세계 농산물 유통 감소와 곡물 가격 급등을 초래하며, 이는 결국 전 세계 식량 안보를 위협합니다.

© UNOCHA/Francis Mweze

유엔난민기구가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

유엔난민기구는 파트너 기관, 각국 정부, 유엔 기구와 협력하여
강제실향민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과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물과 위생, 교육, 주거, 생계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으로
영양실조 예방과 식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양실조 예방

난민, 특히 외진 지역에 거주하는 난민들은 다양한 식품과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식량 및 현금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영양가 있는 식량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생계 및 농업 활동 촉진, 여성 역량 강화, 금융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난민이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급성 영양실조 조기 발견 및 관리

영양실조, 특히 아동의 영양실조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부족한 지역에서 유엔난민기구는 유니세프(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과 협력하여 영양실조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급식 개선

생후 2년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 최적의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평생의 질병 및 사망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긴급구호 상황 및 장기화된 강제실향 위기 속에서도 영유아가 안정적으로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현지 환경과 먹거리에 맞는 다양한 영유아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빈혈 및 기타 영양소 결핍 관리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육류 등 다양한 식품과 식단의 다양성이 부족한 환경에서 빈혈과 기타 영양소 결핍은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영양소가 많이 필요한 영유아와 여성에게는 빈혈과 비타민A 결핍이 가장 우려됩니다. 빈혈은 아동의 성장과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임신 및 출산 중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기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강제실향민의 영양 결핍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영양 보충제 및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수많은 생명을 굶주림에서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식량 위기로 고통받는 난민 가족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난민 가족에게 따뜻한 식사 지원하러 가기

“난민 문제를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노재현 연합뉴스 기자 인터뷰

올해 4월, 연합뉴스와 유엔난민기구는 강제실향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력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연합뉴스 우분투 추진단은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아프리카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이번 호 〈WithYou가 만난 사람〉에서는 그 여정을 함께한 노재현 기자에게 현장에서 마주한 생생한 경험과 느낀 점들을 들어보았습니다.

© Jaehyeon Noh

Q 아프리카에 가신 계기와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A 기후 변화에 따른 아프리카 강제실향민의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섭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내전 등 분쟁에 따른 강제실향민을 생각하기 쉽지만,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후 위기는 지구촌 모두의 문제입니다. 아프리카 내 강제실향민들의 아픔을 보도함으로써 대한민국 독자들에게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싶었습니다.

Q 어느 국가와 지역을 방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서아프리카 카메룬과 니제르를 방문했습니다. 카메룬 최북단 주에서 홍수 피해 마을 등을 찾았습니다. 미나와오Minawao 난민촌에서는 나이지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보코하람을 피해 온 난민들도 만났습니다. 다만 니제르에서는 당국의 미디어 허가를 받지 못해 난민이나 실향민을 직접 취재하지 못했습니다.

Q 취재 과정에서 기자님을 가장 놀라게 했던 장면이나 상황은 무엇이었나요?

A 카메룬 최북단 주의 난민촌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작년 8월 홍수로 집을 잃은 강제실향민 가족이 수십 명 있었는데 생활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낡은 텐트는 3평 남짓에 불과했는데 한 40대 여성은 아이 7명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먹을 물조차 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1년 가까이 이런 곳에서 지내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 Jaehyeon Noh
1

© Jaehyeon Noh
2

© UNHCR/Ashu Richard Atem
3

Q 이번 WithYou 가을호의 커버스토리 주제가 ‘식량 위기’인데요, 현장에서 식량 부족 상황을 직접 체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A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메룬과 니제르의 유엔난민기구 관계자들은 국제사회의 원조 축소로 난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또 카메룬에서 홍수로 텐트촌에서 지내는 강제실향민들은 먹고 살려고 나무, 생선 등을 구해서 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Q 직접 현장에 가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달라진 생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난민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깼습니다. 난민이라고 하면 외부 세계와 고립된 채 텐트 등에서만 생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카메룬 미나와오 난민촌에서 만난 난민들은 메기 양식, 모터 택시(오토바이 택시) 운행 등 다양한 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난민촌 내 청년들이 단체로 넓은 공터에서 축구를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난민을 약하고 수동적 존재로 생각했던 것은 선입견이었습니다.

Q 난민촌과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며 가장 깊이 기억에 남은 순간이나 인물이 있으신가요?

A 아프리카 출장을 다녀온 지 약 석 달이 지났는데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카메룬 미나와오 난민촌에 살고 있는 알리 아바차(59) 씨가 생각이 납니다. 아바차 씨는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으로 난민촌 인근 땅에서 쌀 등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도 지구 반대편(카메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취재진에게 “먼 곳까지 왔는데 안전하게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Q 이번 경험이 기자님이 난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를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A 난민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떠오릅니다. 난민 문제를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난민들도 함께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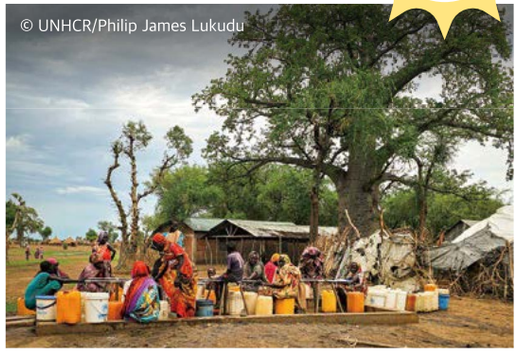
Q 마지막으로 WithYou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대한민국에서 유엔난민기구를 후원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난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난민들이 여러분의 지원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는 점을 아프리카 출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카메룬 미나와오(Minawao) 난민촌에서 만난 아이들
2 카메룬 미나와오(Minawao) 난민촌에서 묘목을 다듬는 난민들
3 카메룬 최북단주 미나와오(Minawao) 난민촌에서 유엔난민기구 마루아 현장사무소장 인터뷰

태양광 시스템, 남수단에서 난민과 지역사회 간 다리를 놓다

매일 아침, 아와디아Awadia는 사람들과 함께 줄지어 태양광 수돗가로 향합니다. 분쟁으로 수단에서 피난한 아와디아는 남수단 마반Maban 지역의 도로Doro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반 지역에는 수단 분쟁 상황 등을 피해 국경을 건너온 2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네 곳의 난민 정착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매일 수없이 다니던 길이지만, 아와디아의 일상에는 분명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 UNHCR/Philip James Lukudu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태양광 급수시설은 이제 난민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물줄기 아래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지고, 여성들은 물을 길으며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 이제 이곳은 단순히
물을 길으러 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도 해요.❞

아와디아 야신Awadia Yassin

이러한 변화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보수와 운영 유지가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태양광 식수 공급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마조크 존Majok John 유엔난민기구 파트너 기관 릴리프 인터내셔널Relief International 식수·위생 코디네이터는 말합니다. **"난민과 지역사회 간의 공동 책임감이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기술적으로도 이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마반 지역의 풍부한 햇빛을 활용해 펌프와 저장 시설을 작동시키며, 하루 10시간 동안 물을 공급합니다. 운영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물을 얻기 위해 서두르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역 주민 알루티 둘루 냘로Al-Lutti Dulu Nyalo는 태양광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을 회상합니다.

"태양광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물을 길으러 오는 일이 항상 급박하고 긴장감이 있었어요. 물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운영 시간이 길어지고 공급이 안정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일상 속의 교류는 난민과 지역사회 간의 신뢰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쌓아갑니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식수 공급지에서 관계를 쌓았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나서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남수단의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해결 전략National Durable Solutions Strategy과 어퍼 나일Upper Nile 주의 2024-2026 추진 계획과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식수 공급 프로젝트는 긴급 거처 지원, 기후 변화에 강한 거주지 마련, 가정용 화장실 설치, 도로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인프라 개선과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 간의 유대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았던 실바 알케베Silva Alkebeh, 유엔난민기구 마반 지역 사무소장은 말했습니다.

"식수 공급지 설치와 보수는 단순히 깨끗한 마실 물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공동체가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공유하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비로소 장기적이고 평화적인 공존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 UNHCR/Philip James Lukudu

태양광 기반 시스템은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이는 기술 교육과 고용 기회도 창출합니다. 인근지역 기술자들은 펌프를 수리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법을 배우며, 지역사회 위원회는 일상적인 운영을 감독하고 두 공동체 간 작은 갈등들을 해결합니다. 이는 공동 책임감은 형성하는 데 기여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와디아에게 이러한 변화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의미합니다.

"제 딸은 지역사회 아이들과 함께 놀아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꿈을 꿔요. 난민으로서 이런 모습은 정말 큰 희망이에요."

© UNHCR/Philip James Lukudu

© UNHCR/Philip James Lukudu

후원자님과 유엔난민기구의 첫 약속

유엔난민기구 창설 75주년을 맞아, 후원자님과 저희가
처음 만난 순간을 함께 돌아보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모든 답변을 이곳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정성껏 살펴본
이야기 속에는 아이의 탄생을 기념한 기쁨, 지친 삶 끝에 다시
희망을 붙잡은 순간까지 저마다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내어주신 그 소중한 첫 약속을 늘 마음에 새기며,
전 세계 곳곳에 희망을 전하는 유엔난민기구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후원을 시작했어요

어느날 감사 인사가 담긴 편지가 오더군요
지금은 조금씩 후원금액도 늘려가고
나눔을 더 실천할 곳도 찾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해 주셔서

이행자 후원자님

2013년, 어학연수 중 필리핀에서
태풍을 겪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건 유엔난민기구의 구호물자였어요

현장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후원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안중역 후원자님

저와 멀리 떨어진 지구 어느 곳에
작은 온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돕는 일로 인해,
저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은정 후원자님

날이 선선했던 날 덕수궁 돌담길에서
여자 친구와 걷다 만난
유엔난민기구 부스

멋있어 보이고 싶던 마음과
돕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후원이
이젠 오래된 추억이 되었네요

정연우 후원자님

가게를 열며 시작한 후원
힘든 시기에도 이상하게 후원만큼은
그만둘 수 없었어요

행운의 부적처럼 저를 지켜준
그 인연 덕분에 지금은 가게를 7년째
이어오고 있답니다

오은실 후원자님

우리 엄마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는
수업료라고 내 후원비를 내주신대

다른 나라 친구들도 깨끗한 집에서
엄마가 한 따뜻한 밥을 먹고 살면 좋겠어!

정진헌 후원자님

오랜 투병으로 어렵게 일해온 시간들,
정년퇴직하는 달에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지금도 함께하는
유엔난민기구에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박성규 후원자님

아빠가 되며 처음 알게 된 마음

먼 나라의 아이들도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시작했어요

이제 8살이 된 아들과 언젠가 함께
후원할 날이 오겠죠?

김영대 후원자님

14년 전, 입사 초기 힘들었던
제 생일에 만난 유엔난민기구 모금 부스

이제는 행복한 저처럼 누군가도
제 후원으로 행복해졌길 바랍니다

김미영 후원자님

* 본 소식지에 실린 성함 및 답변은 이벤트 참여시 게재에 동의해 주신
내용으로, 후원자님의 소중한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전 세계 곳곳에 가져온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나디아Nadia와 두 딸의 집은 우크라이나 프리시브Pryshyb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여름, 고향이 러시아에 의해 점령되자,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포리자시Zaporizhzhia로 피난해 어렵게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가던 지난해 4월 어느 날, 미사일 공격이 가족이 살던 아파트를 덮쳤습니다. 폭발로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졌고, 집 안이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현지 파트너 단체와 함께 깨진 창문을 막을 수 있도록 긴급 자재를 지원하고, 설치 작업을 도왔습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적시에 도움을 전할 수 있었던 건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 ❝ 이 지원이 없었더라면 너무 추워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덕분에 집에서 다시 잘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여기가 우리 집이거든요. ❞
>
> 나디아Nadia

우크라이나

© UNHCR/Chadi Ouanes

© UNHCR/Reason Moses Runyanga

남수단

남수단 말라칼Malakal에서 수단의 하르툼Khartoum으로, 그리고 수단에서 다시 남수단으로, 메리Mary는 인생에서 두 번이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쫓기듯 도망쳐야 했습니다.

몇 년 전 말라칼에서 하르툼으로 피난했지만, 피난한 지역에서 또 전쟁이 터지자 메리는 다시 고향인 남수단 하이 마타르Hai Matar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피난으로 고향에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문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파트너 단체와 함께 메리와 가족들이 땅을 되찾고, 그 위에 새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행히 비교적 수월하게 땅을 되찾을 수 있었던 메리와 달리, 여전히 많은 귀환민들이 피난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땅과 집을 잃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주거·토지·재산(Housing, Land and Property (HLP)) 프로젝트를 통해 강제실향민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평화로운 정착을 위한 토지 분쟁 해결까지 돕고 있습니다.

> ❝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아이들과 손주들까지 밤에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다시 뿌리를 내릴 거예요. ❞
>
> 메리Mary

❝ 많지 않을지라도 큰 도움이 돼요. 텐트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천국에 온 기분이에요. ❞

할룸Halloum

© UNHCR/Hameed Maarouf

시리아

할룸Halloum은 시리아 알레포Allepo 서부 농촌 지역 카프르 주움Kafr Joum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력 충돌로 집을 떠나 시리아와 튀르키예 국경 근처의 잔다이어리스Jandairis로 피난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이 안정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할룸은 들뜬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마주한 고향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집은 약탈당해 문과 창문조차 없이 텅텅 빈 상태였고, 수도와 전기는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돌아왔을 때 정말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제가 다시 집에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할룸은 무너진 곳들에 담요와 방수천으로 덮고 살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늘 집이 주는 안정감을 그리워했던 할룸은 다시 떠나는 대신 망가진 집에 머물기를 선택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할룸에게 매트리스와 침구, 주방 세트, 태양광 램프, 물병 등 기본 구호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비록 당장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하진 못하지만, 다시 삶의 기반을 다지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 처음 제빵 훈련생으로 선발됐을 때는
성공하지 못할까 두려웠어요.
이전에는 여성 제빵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제빵 기술을 배우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을 통해 기술을
배울 기회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

냐쿠스Nyakouth

냐쿠스Nyakouth는 홍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축도, 재산도, 평범했던 일상도 한순간에 물에 휩쓸려버렸고, 냐쿠스는 남수단 내 다른 지역으로 급히 피난했습니다.

벤티우Bentiu 난민촌으로 피난했지만 홍수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 왔다는 안도감도 잠시, 낯선 곳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생필품 하나하나까지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 냐쿠스는 유엔난민기구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삶을 재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빵 기술 훈련생으로 선발된 냐쿠스는 빵 만드는 법을 배웠고 머지않아 자신만의 빵집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마을 여성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제 빵집을 열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리고 다른 여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함께 일하면서 다 같이 제빵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냐쿠스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하고,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지 않도록 신발을 사줄 수 있습니다.

© UNHCR/Tiksa Negeri

남수단

Q 난민이 유엔난민기구 직원이 된 경우도 있나요?

A 유엔난민기구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에는 과거 난민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피난 행렬 속에 있던 사람들이 생존의 기억을 힘으로 바꾸어,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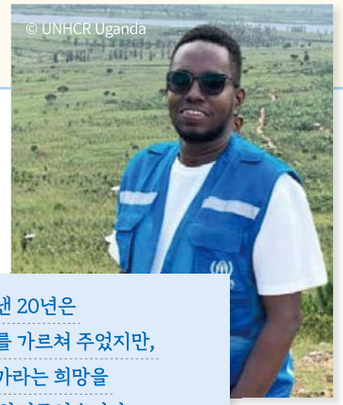
도움을 받던 난민에서, 난민을 돕는 인도적 지원 활동가로

유엔난민기구 난민 직원들 이야기

말리Mali 출신인 일리아스는 2012년 쿠데타로 고향을 떠나 부르키나파소Burkina Paso로 피난한 난민이었습니다.
멘타오Mentao 난민촌에서 동료 난민들을 돕던 경험은 그의 삶을 바꿔 놓았고, 지금 그는 유엔난민기구 부르키나파소 사헬 지역에서 선임 현장 보조관으로 일하며 자신이 겪은 길 위에서 다시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난은 집과 가족, 삶의 안정을 모두 뒤에 두고 떠나는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뜻밖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난민이었던 제가 유엔난민기구에서 일한다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내가 한때 겪었던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희망을 다시 전하는 사명입니다."

모든 난민 지위 뒤에는 한 사람,
하나의 꿈, 그리고 존중받아야 할
용기와 힘이 있습니다.

일리아스 아그 말릭Ilyas Ag Malik
유엔난민기구 부르키나파소 사무소 현장 보조관



난민으로 보낸 20년은
고통의 대가를 가르쳐 주었지만,
동시에 언젠가라는 희망을
꿈꾸는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아흐메드 알리 아흐메드Ahmed Ali Ahmed
유엔난민기구 우간다 사무소 프로그램 담당관

갓 두 살 때 가족과 함께 소말리아를 떠난 아흐메드는 케냐 다다브Dadaab 난민촌에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며 성장했습니다.
우간다에서 유엔난민기구 프로그램 담당관으로 일하며 난민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가로 일하는 아흐메드의 이야기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유엔난민기구에는 강제실향을 직접 겪은 동료들이 있고, 이들은 잃어버린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펼칠 역량과 가능성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피난은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거듭, 또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단단히 붙잡는 일이기도 하지요.

하니파 카리미Hanifa Karimi
유엔난민기구 카자흐스탄 사무소 보호 담당관

"어떤 경험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1990년대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던 때? 아니면 두 번째 고향인 우크라이나 하르키우가 미사일 공격을 받던 순간일까요?"
유엔난민기구 카자흐스탄 사무소에서 일하는 보호 담당관 하니파 카리미는 난민 보호 업무를 '일'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피난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조부모와의 마지막 인사도, 친구와 학교, 어린 시절 장난감까지도 뒤로한 채 떠나야 했던 기억.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처음부터 다시 삶을 세워야 했던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30년 뒤 또다시 그녀의 가족을 덮쳤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집과 사업까지 잃으며, '다시 난민이 되는 경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하니파는 유엔난민기구 직원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눕니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생존의 기록이 아니라, 난민 보호를 위한 깊은 헌신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모하메드는 오랫동안 난민과 강제실향민을 돕는 인도적 지원 활동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자신이 수년간 마주해온 난민의 상황에 직접 놓이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고향 수단으로 돌아가 명절을 보내던 중 전쟁이 발발했고, 순식간에 그는 다른 이를 대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피난이 필요한 당사자가 됐습니다.
"그전까지 피난은 다른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막상 제 일이 되고 나니 안전한 환경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유엔난민기구에서 일하는 지금, 모하메드는 빼앗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하메드는 연대를 단순한 자선이 아닌, 같은 자리에 서서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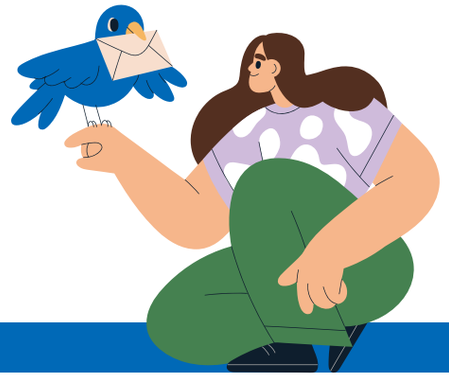
강제실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보호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모하메드 마킨Mohamed Makeen
유엔난민기구 리비아 사무소 프로그램 담당관

유엔난민기구에 궁금한 모든 것, 돋보기에 물어봐주세요!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 소정의 선물 🎁 을 보내드립니다.

유엔난민기구 소식



글로벌 소식 더 보기
(영문)

글로벌

아프가니스탄 강진 긴급구호 캠페인 진행

8월 31일,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수천 명이 숨지고, 마을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진 직후부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물류창고에 미리 비축해 놓은 텐트, 담요, 태양광 랜턴 등을 피해 지역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이미 여러 차례 지진과 홍수로 피해를 입은 아프가니스탄에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올해에만 250만 명 이상이 귀환하거나 강제로 송환되었지만 안전하게 머물 거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아프가니스탄 강진 긴급구호 캠페인을 개설하여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표부

“취약에서 역량강화로”, 코이카 성과관리단, 유엔난민기구 분쟁취약국 지원 사업 현장 방문

8월 15~21일, 유엔난민기구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협력하는 분쟁취약국 지원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관리단이 요르단을 방문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커뮤니티 구축”을 주제로 2024~2026년간 진행되는 이번 지역 사업은 중동(요르단, 레바논)과 동아프리카(남수단, 부룬디) 내 강제실향민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성과관리단은 유엔난민기구의 역할과 인도적 지원-개발-평화(HDP) 연계 접근법을 중심으로 코이카와의 파트너십을 검토했습니다. 현장에서 성과관리단을 만난 한 난민은 “아직 시리아 내 상황이 불안정해 당장 귀환은 어렵겠지만, 이른 시일 내에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재회하고 싶다”며, 코이카의 지원으로 마련된 안전한 거처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내 난민 아동·청소년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대한 경험과 전망〉 실태조사 최종 보고회

6월 9일, 유엔난민기구의 위탁 연구로 진행된 〈국내 난민 아동·청소년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대한 경험과 전망〉의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실태 보고서와 보고회에서는 국내에서 자라나고 있는 난민 아동·청소년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들의 불안, 생계의 어려움, 차별, 교육권 등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기술난민제도 국내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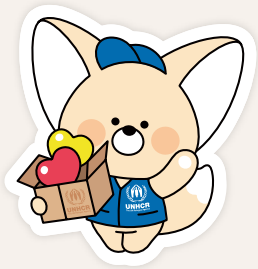
6월 18일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강일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난민연구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유엔난민기구가 주관한 〈2025 기술난민제도 국내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법무부, 이케아(IKEA), 이민정책연구원, 다문화 관련 협회, 학계 등 여러 유관 기관이 참석하였으며,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난민제도의 도입을 위한 이민정책이 검토 및 제안되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 코이카, 에티오피아 내 분쟁, 기후 위기 영향을 받은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해 맞손

8월 21일, 유엔난민기구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에티오피아 내 분쟁 및 기후 위기에 영향을 받은 청년들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이카, 유엔난민기구, 유엔인구기금이 협력하여 에티오피아 아파르Afar 및 남부국가민족주(SNNP) 지역의 국내실향민 및 귀환민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 역량 및 권리 증진,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총 30만 명의 청년이 직접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이는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16번 평화·정의·포용적 사회 구축, 3번 건강한 삶 보장 및 5번 성평등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개발-평화(HDP) 연계 접근을 통해 청년들이 자립과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도적 가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세계 인도주의의 날” 캠페인 참가

8월 19일,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지난 8월 19일~24일 여의도 IFC 몰에서 개최한 팝업 행사에 유엔난민기구가 참여했습니다. 총 6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유엔난민기구를 포함한 14개의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활동 단체가 참여하여, 인도적 지원 활동가 유형 테스트, 위기 현장 사진 및 영상 전시 등의 체험형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인도주의의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3천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팝업 행사에 방문하여 직접 인도적 활동가에게 감사 메시지를 작성하며, 연대와 가치의 의미를 체험했습니다. 대한민국 내 인도적 지원 가치 확산을 위한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내 이름은 온덕이야

나는 사막에서 태어났어.
낮엔 너무 뜨겁고, 밤엔 깜깜하고 추운 그곳에서,
나도 혼자였던 적이 있어. 그래서일까?
모든 걸 두고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나한텐 낯설지 않아.
나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에 태어났어.
전 세계 사람들이 '난민'에 대해 생각하는 날이래.

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꿈을 모아 지도에 그려왔어.
그러다 길 위에서 파란 조끼를 입은 유엔난민기구 사람들을 만났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달려와 유난스러울 정도로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파란 조끼와 모자를 쓰고
유엔난민기구의 여정을 함께 걷기 시작했지.
조끼와 모자를 입으면 나는 그냥 사막여우가 아니야.
보호자이자, 행동가이자, 유엔난민기구의 목소리가 되는 거야.

이제, 너도 나와 함께 할래?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름 온덕
MBTI ENFJ
취미 별자리를 그리며 하루 기록하기,
손편지 쓰기, 엽서와 우표 모으기

이름 또또
MBTI ISTP
온덕이가 처음으로 구조한 작은 생명체.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 가시로
자신을 지켜왔지만,
온덕이의 온기에 마음을 엶.

갖고 싶은
온덕이 굿즈를 알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온덕이 노트·볼펜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 기간
2025년 11월 21일(금)까지

참여 방법
아래 QR코드를 스캔해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전화 02-773-7272 (기업 및 재단 후원 문의 02-2079-8943~4) **이메일** withyou@unhcr.or.kr **홈페이지** unhcr.org/kr
블로그 blog.naver.com/unhcr_korea **해피빈** happylog.naver.com/unhcr
후원계좌 국민은행 407537-01-004288 (예금주: 유엔난민기구 혹은 UNHCR)
주소 (우)04532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4, 14층 (소공동, OCI 빌딩)

Print using soy ink — 유엔난민기구는 환경보호를 위해 콩기름 잉크를 사용합니다.

MIX
Paper | Supporting responsible forestry
FSC® C005413